

## 청소년의 삶의 질에 관한 경험적 연구

전 신 현\*

- I. 서 론
- II. 삶의 질에 대한 기존의 연구
- III. 연구모델의 구성 및 연구방법
- IV. 분석결과
- V. 결 론

### I. 서 론

최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삶의 질의 향상을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각 정당이나 많은 출마자들이 삶의 질의 향상을 주요 선거공약의 하나로 내세웠다. 복지사회의 관심과 의식전환, 시민단체들의 환경보호 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움직임, 그리고 직장인들이 틈을 내서 야외를 찾거나 여가를 즐기려는 경향을 보더라도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얼마만큼 증대되고 있는가를 잘 나타낸다.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높아가고 있지만 정작 과연 삶의 질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의내리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흔히 삶의 질이란 사회정책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바람직한 결과들을 지칭할 때 사용된다. 따라서 정책입안자들은 사회의 경제수준, 교육수준, 환경오염 정도, 복지수준, 의료수준, 사회안전도 등을 삶의 질의 주요 지표로 보고 그것을 삶의 질의 기준으로 사용한다. 공식자료를 통해 다양한 사회지표를 사용함으로써 국가간 비교연구를 하거나 한 사회의 삶의 질의 정도를 파악하려는 연구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국내외 학자들간에는 삶의 질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 의견이 다양하다. 일부에서는 삶의 질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외부의 조건들이라 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개인들의 정신적이고 내적 삶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한다. 즉 사회성원들이 삶을 누리고 있는 사회의 경제력, 인구, 환경, 제도여건 등의 여러 조건들을 삶의 질이라 지칭하기도 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성원들이 주관적, 심리적으로 느끼는 안녕감 혹은 행복

\* 서울여대, 덕성여대 사회학 강사

삶을 삶의 질이라고 보기도 하는 것이다. 삶의 질을 사회수준에서 파악해야 하는 것인지 개인수준에서 파악해야 하는 것인지, 객관적 지표를 통해 파악해야 하는 것인지 사회구성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그 의견이 다양하다. 또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영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매우 다양하다. 일부에서는 한 사회의 경제수준이 중요하다고 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복지수준이나 의료시설 혹은 자연주거환경이 중요하다고 보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가정이나 직장생활에서의 만족, 여가활동 등이 중요하다고 보기도 한다. 삶의 질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내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객관적 사회지표를 중심으로 국내의 삶의 질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한 연구는 점차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개인들이 사회 각 부문에 그리고 개인의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관한 개인들의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는 사회 및 개인영역에 있어서의 각각의 삶에 대한 개인들의 주관적 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영역은 무엇인지를 통해 삶의 질을 정의하는 데 있어 그 주요 요소들은 과연 무엇인가를 도출해 보고자 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여기서는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하여 삶의 질의 결정요인들을 분류, 도출하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험적 연구를 통해 그 주요 요인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 II. 삶의 질에 대한 기존의 연구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1960년대 이후 경제학,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의학 등 다양한

학문들에서 다뤄져 왔으며, 삶의 질에 대한 정의와 연구방법도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삶의 질에서 '질'에 대한 정의는 의견이 일치한다. 이는 어떠한 수준이나 등급을 지칭하는 것으로 낮은 수준에서부터 높은 수준의 범위를 말한다. 그러나 '삶'에 대한 정의는 의견이 다양하다.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삶의 질은 객관적인 측면에서의 삶의 질과 주관적인 측면의 삶의 질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삶의 질에 대한 연구방법도 객관적인 지표에 의존한 연구와 사회성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한 연구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Schuessler and Fisher, 1985).

객관적인 지표에 초점을 두는 연구는 외부 관찰자에 의해 객관적으로 평가되어 질 수 있는 지표들을 통해 삶의 질을 연구한다. 이러한 입장에 있는 학자들에 따르면 삶의 질이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바람직한 외부 환경조건의 수준이라고 정의한다(McCall, 1975; Liu, 1976; Morris, 1979; Cereseto and Waitzkin, 1986). 이러한 연구방법은 특히 최근까지 국가 혹은 사회를 단위로 하는 국가간, 사회간 혹은 한 사회내 지역간의 삶의 질의 수준을 비교, 파악하려 했던 연구에서 사용되었다(Szalai and Andrews, 1980; Williamson, 1987; Hirschberg et al., 1991; Jafar and Sufian, 1993).

국가정책 결정자나 국제기구에서는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들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많은 국가들로부터 자료를 얻어 이를 분석해 왔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표들간에는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고 보아 수집이 용이하고 어느 국가에나 쉽게 적용할 수 있으며 분석상 편리한 몇가지 일반적인 지표를 사용하기도 한다. Morris(1979)의 삶의 질 지표 *Physical Quality of Life Index*에 근거하여 유아사망율, 평균수명,

문맹율 등을 삶의 질의 주요 지표로 사용하는 연구가 그러한 예이다(Ram, 1982; Bradshaw and Fraser, 1989; Stokes and Anderson, 1990).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표들을 고려한다. 예를 들어 유엔자료나 인구센서스를 통해 한 사회의 경제수준, 식량, 식수 및 주택보급율, 의료보전시설, 통신시설, 교육수준, 치안, 환경 및 생태적 조건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여건을 파악하여 한 사회의 전체적인 삶의 조건과 그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의료보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아사망율, 평균수명, 의사 1인당 인구수, 치안 및 사회안전도를 위해서는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율, 통신시설을 위해서는 1인당 전화 및 TV 보유수, 교육수준을 위해서는 문맹율 혹은 상급학교 진학율, 주택시설을 위해서는 1인당 주거공간면적 등이 사용된다.

위와 같은 대표적인 초기 연구로는 1970년 유엔자료를 통해 120개 대도시의 삶의 질을 비교, 평가했던 Liu(1976)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경제, 정치, 환경, 보건 및 교육, 사회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저축율, 자가소유율, 신문구독율, 환경오염 정도, 유아사망율, 학교진학율, 범죄율 등을 사용하여 삶의 질에 대한 비교연구를 시도했다. 또한 인구밀도, 건강수준, 범죄율, 교육 및 여가수준, 환경, 교통수단, 주택, 종교, 사망율 등을 통해 미국과 캐나다의 삶의 질을 비교한 Michalos(1980)의 연구도 그 대표적인 예다. 보다 최근의 연구에서 Hirschberg와 동료들은(1991) 인구 1인당 전화 및 라디오 대수, 에너지 소비율, 영양섭취, 문맹율, 평균수명, 인구성장율, 여성의 노동참여율, 시민의 자유, 병원수, 유아사망율 등 23개 지표로 120국가의 삶의 질을 비교했다. 국내의 최근 연구로는 의료(의사, 간호사 1인당 인구수, 병상당 환자수), 치안(인구 1000

명당 범죄지수), 사회시설(1인당 공공도서관수), 문화여가(극장 화면당 인구수), 정보소통 수준(일간신문 발행수) 부문에서의 지표를 통해 세계 11대 주요 도시의 삶의 질의 수준을 비교한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를 들 수 있다(시정개발연구원, 1996).

그러나 삶의 질의 측정을 위해 어떠한 지표를 사용해야 하는가에는 학자에 따라 의견이 다르며, 연구자마다 상이한 지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국가, 사회간 비교연구에서는 어떠한 지표를 사용했느냐에 따라 삶의 질의 순위가 달라지게 된다. 예컨대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에서 환경오염 정도, 노인이나 장애인 복지, 교통난, 녹지공원 면적 등을 지표로 사용했다면 각 도시의 삶의 질의 정도와 순위는 달라질 것이다. 최근 Jafar와 Sufian(1993)의 연구에서는 사회안전도(인구 10만명당 살인율), 음식비용(수입 중 음식에 지출하는 비중), 공간면적(방 1개당 사람수), 주택수준(수도과 전기를 갖춘 주택비율), 정보수준(100명당 전화대수), 교육수준(상급학교 진학율), 보건수준(유아사망율), 그밖에 소음, 공기오염, 교통난 등의 10개 지표를 통해 세계 98개 대도시의 삶의 질을 평가했다. 그리고 지표들에 근거하여 대도시를 상,중,하 세 집단으로 분류하고 판별분석을 통해 어떠한 지표가 이러한 집단분류를 가장 크게 설명하는가를 연구했다. 그 결과 캐나다의 몬트리올이 삶의 질에 있어 가장 높은 점수(79점)를 얻었고 서울은 26위, 부산은 66위를 기록하였는데, 음식비용이 그 판별요인으로 가장 중요하며 그 다음으로는 정보수준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삶의 지표로 중요시 다뤄져 왔던 교육수준이나 유아사망율 등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요인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다.

객관적 지표에 의한 연구는 삶의 질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과 사회를 단위로 하는 연구에서 보다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표선정의 문제 이외에 과연 삶의 질이 사회구성원들의 평가없이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 파악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있다. 이러한 비판은 주로 주관적 연구방법에 의존하는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삶의 질에 대한 연구에 있어 주관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는 연구는 관찰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지표대신 사회구성원 각자 자신의 생활조건에 대한 평가, 판단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에 있는 학자들은 객관적인 어떠한 사실보다는 그러한 사실에 대한 개인들의 평가가 보다 중요하다고 본다(Brief et al., 1993; 조명한 외, 1994). 즉 삶의 질이란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느끼고 인지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 행복감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Campbell et al., 1976; Diener, 1984). 삶의 질의 대표적인 연구자인 Campbell (1976)에 따르면 삶의 질은 객관적인 상황에서 발견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적, 주관적 경험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사회구성원들간의 삶의 만족도를 비교하는 국가간, 사회간 비교연구도 물론 가능하지만(Szalai and Andrews, 1980; Argyle, 1987; Mukherjee, 1989; Strack et al., 1991), 이는 또한 한 사회내의 구성원 개개인을 단위로 하는 연구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주관적인 연구방법은 관심분야가 다양하다. 우선 개인이 살아가는 사회의 영역별 조건에 대한 평가를 통한 삶의 질의 연구가 있다. 자신이 속한 사회의 경제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지, 환경오염 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 사회복지제도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와 같이 객관적인 연

구방법에서 사용되었던 측면들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중시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경제, 환경, 교육, 의료시설 등의 사회여건에 대한 평가 이외에 개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여건에 대한 평가를 중시하는 연구도 있다. 예컨대 가정의 경제수준, 가정내 부부관계 또는 부모-자식관계, 직장 및 학교에서의 생활, 친구나 동료와의 인간관계, 여가활동 등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관적 연구방법은 사회여건 이외에 삶의 질에 있어 또 다른 주요 영역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를 통해 전체적인 삶의 질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셋째로 개인들의 다양한 정신심리영역을 삶의 질의 주요 지표로 다루는 연구도 있는데, 개인의 자긍심, 능력인지도, 삶의 의미 등을 고려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을 구체적인 영역에서의 평가와는 관계없이 개인이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느끼는 전체적인 안녕감 혹은 행복감이라고 보는 방법도 있다.

Diener(1984)에 따르면 주관적 연구방법은 크게 상향 *bottom-up*이론과 하향 *top-down*이론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한다. 상향이론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평가와 만족감을 통해 전체적인 주관적 안녕감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Campbell (1976)의 연구에서와 같이 건강, 결혼생활, 가정생활, 친구관계, 주택, 직장, 지역사회, 종교, 기타 사회활동, 경제수준, 조직체 활동, 정부 등 12 영역에서의 만족감을 통해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를 알아보는 방법이 이에 해당된다. 하향이론은 객관적인 외부조건에 관한 판단보다는 개개인의 주관적 판단성향을 중시한다. 즉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동일한 외부상황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보고 그러한 성향의 차이를 발견하려고 한다. 구체적인 외부 조건들 혹은 그러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주관적 판단들을 고려하기보다는 개인들의 자긍심, 통제능력과 같은 정신심리 특성을 파악하려는 연구나 삶의 질을 주관적 혹은 심리적 안녕감과 동일한 개념으로 취급하여 일반적으로 느끼는 행복감 혹은 안녕감을 통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 연구가 이에 해당된다.

삶의 질의 연구에 있어 주관적 혹은 심리적 안녕감에 초점을 두는 연구는 그것이 독립적인 하위차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주관적 안녕감은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삶의 만족감 등 3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Andrews and Withey, 1976; Diener, 1984; Argyle, 1987). 긍정적 감정은 삶이 전체적으로 즐겁고 기쁜지, 부정적 감정은 삶에 있어 걱정, 슬픔 등을 느끼는지와 같은 감정적 요소이다. 삶에 대한 만족감은 자신의 삶에 일반적으로 만족하는지의 인지적 평가를 말한다. 또한 일부에서는 행복감을 주관적 안녕감의 또 다른 주요 요소로 다루기도 한다(Campbell, et al., 1976; Kamman et al., 1983; Abbey and Andrews, 1986; Ryff, 1989; Veenhoven, 1991). 예컨대 Abbey와 Andrews(1986)는 삶의 질 혹은 주관적 안녕감이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삶에 대한 만족, 전체적인 행복감, 그리고 인지적 측면 등 5차원으로 구성된다고 본다. 이들 연구에서는 행복감이 주관적 안녕감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다. 또한 인지적 요소란 자신의 삶이 자신이 원하는 만큼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라고 보고 이를 삶의 만족감과 구별짓고 있다.

주관적 안녕감에는 일반적인 만족감, 행복감이 외에 다양한 심리적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Ryff(1989)는 자긍심, 삶의 의미,

개인적 성장감, 자율성, 환경통제력 등을 삶의 질의 주요 영역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 즉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지, 자신의 삶에 어떠한 목표와 의미가 있는지, 자신이 늘 발전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든 일을 자신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수행하는지, 환경에 의해 구속받지 않고 자신이 능동적인지 등을 삶의 질의 주요 요소로 다룬다. 보다 최근에 Schalock (1990, and Keith, 1993)도 일반적인 삶의 만족감, 행복감이외에 삶에 대한 통제력 등의 차원을 그 주요 요소로 고려했다.

그러나 주관적 안녕감을 위의 요소들로 국한하게 될 때 삶의 질을 지나치게 심리적 영역으로 다루게 된다는 우려가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있는데, Levine 과 Croog (1984)는 삶의 질의 영역을 감정적 측면, 인지적 측면, 일반적인 행복감 외에 신체건강의 측면과 사회역할 수행의 측면을 포괄해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개인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감정적 요소와 만족도 이외에도 신체적인 건강과 다양한 역할수행상의 만족도(예컨대 가정생활, 직장생활, 그밖의 영역에서의 성취도와 만족감)가 삶의 질의 주요 요소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주관적 안녕감보다는 사회적 안녕감 *societal well-being*이라는 개념을 통해 삶의 질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OECD, 1976). 사회의 특정 영역별 요소들을 고려하는 상하이론가들의 연구가 이에 해당된다. 대표적인 연구는 Campbell의 연구에서부터(1976) 다양한 최근의 연구가 있다. Flanagan(1978)은 삶의 질의 영역을 크게 신체 및 물질적 행복, 타자와의 인간관계, 사회활동, 개인적 성장감, 여가 등 5가지로 분류하고 이러한 영역에서의 만족감을 통해 삶의 질 혹은 전체적인 주관적 안녕감을 도출할 수 있

다고 본다. Evans와 Cope(1989)도 삶의 질의 영역을 물질적 수준, 신체건강, 부부관계, 부모-자식관계, 그밖의 형제나 기타 가족관계, 친척관계, 직업의 특성,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직장에 대한 만족도, 스포츠, 여행, 예술활동, 정치활동, 개인적 성장감 등 15개의 다차원으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 이와 유사한 대표적인 연구로 삶의 만족감을 물질적 만족감, 인간관계상의 만족감, 신체건강상의 만족감 등의 특정 영역으로 구분한 Adelman과 그의 동료들의(1989) 연구 “Perceived Life Satisfaction Scale”가 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가정, 학교, 친구, 주거환경 그리고 자기자신에 대한 5영역에서의 만족감으로 삶의 질을 파악한 최근의 Huebner(1994)의 연구 (“Multidimensional Students’ Life Satisfaction Scale”)도 이에 해당된다. 생활사건 *life-event* 접근방법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는 건강, 일, 재정, 경제, 가정, 법률, 주택, 그밖의 영역별 사건의 심각성 정도를 통해 사회적 안녕감을 살펴보는 연구이다(Thoits, 1983; Headey and Wearing, 1989; Smith, 1992).

삶의 질이란 직접 관찰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 영역을 다루는가에 따라 그 수준이 변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떠한 영역을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학자들간에 의견의 일치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객관적인 연구방법에서와 같이 삶의 질을 외부의 객관적인 조건이라 볼 경우 이는 사회구성원의 주관적인 판단과 느낌을 고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삶의 질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어떠한 지표를 사용할 것인가의 논란이 있게 된다. 사용되는 지표가 무엇인가에 따라 평가되는 사회의 전체적인 삶의 질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부문영역별 만족도를 고려한 주관적인 연구방

법에서는 사회여건, 가정, 직장, 친구관계, 건강, 심리적 영역 등에서의 주관적 만족도를 합산한 값으로 전체적인 삶의 질을 파악한다. 이는 하나 혹은 몇개의 질문문항으로 전체적인 주관적 안녕감이나 행복감을 측정하는 연구보다 다양한 삶의 영역을 포괄한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도 객관적인 연구방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삶의 질의 측정을 위해 어떠한 영역들을 선정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으며 자칫 중요한 특정 영역이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을 수 있는 단점이 있기도 하다. 또한 연구방법상의 복잡성이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그밖에도 모든 영역이 동일한 수준으로 전체적인 삶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어떤 영역은 다른 영역보다 삶의 질의 결정요소로 보다 중요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각각의 영역에 대하여 가중치를 달리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다양한 영역을 고려하는 방법보다는 전체적인 주관적 안녕감을 통해 일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기도 하다.

특정 영역별 만족도와 일반적인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절충하는 방법이 제시되기도 한다. 예컨대 삶의 질의 영역을 감정적, 인지적 측면, 일반적인 행복감외에 신체건강의 측면, 거주지역, 가정, 직장, 친구관계, 재정경제 수준에 있어서의 만족도 등을 포괄하여 총괄적인 삶의 질 혹은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Levine and Croog, 1984; Jenkins et al., 1990; Mookhetjee, 1991).

### III. 연구모델의 구성 및 연구방법

#### 1. 연구모델의 구성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을 포괄하는 방법을 통해서 삶의 질에 대한 연구를 시도해 보려고 한다. 즉 사회영역별 만족도와 일반적인 삶의 주관적 안녕감을 모두 고려한다. 사회영역별 만족도를 고려함으로써 지나치게 심리학적인 연구를 지양하려 하고 일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고려함으로써 영역별 연구의 단점을 극복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를 주요 종속변인으로 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삶의 영역은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려는 데에 보다 일차적인 목적을 갖는다. 즉 삶의 질의 구성요소로 다루어져 왔던 다양한 요인들을 주관적 삶의 질의 결정요인들로 보는 것이다.

삶의 질을 단순히 개인 외부의 삶의 조건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안녕감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삶의 질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객관적인 조건이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이 실제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조건을 말한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Lane(1994)은 삶의 질이란 삶의 질의 외부 조건들과 이를 인식하는 인간간의 관계라고 정의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간이 행복하다고 판단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발견하는 것에 있다고 본다. 그러한 조건들은 사회적 차원에서부터 개인심리적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다.

삶의 질에 대한 초기의 연구에서 Andrews와 Withey(1976)는 일반적인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개인의 특성, 객관적인 삶의 상황, 다양한 영역에서의 만족도를 제시하고 인과모델

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요인들을 파악하려는 시도를 한 바 있다. 즉 특정 사회영역별 만족도가 삶의 질의 지표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들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인과모델을 통한 이러한 연구는 어떤 특정 영역이 다른 영역보다 개인의 심리적, 주관적 삶의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지를 파악하는 데 기여를 한다(Abbey and Andrews, 1986; Romney et al., 1992; Diener et al., 1994).

본 연구는 우선 사회적 차원의 삶의 질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려고 한다. 객관적인 연구방법에서는 주로 사회를 분석단위로 하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수준을 통해 삶의 질을 파악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객관적인 지표보다는 우리사회의 객관적인 다양한 조건들에 대한 개인들의 주관적 판단을 통해 사회수준의 삶의 질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과연 어떤 영역이 전체적인 사회에 대한 만족감의 주요 결정요인이 되는지를 파악하기로 한다.

기존의 학자들은 삶의 질의 주요 사회영역에 대하여 그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은 인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 및 물질적 수준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 즉 한 사회의 경제수준이 그 사회전체의 혹은 개인의 삶의 질의 수준을 좌우한다고 본다. 이 입장에서는 산업화와 현대화, 그에 따른 경제성장 과 부의 증진이 사회 혹은 개인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본다(Bradshaw and Fraser, 1989; Inkeles, 1993). 경제발전은 사망율의 저하를 가져와 전체적인 국민건강에 이렇게 작용할 뿐 아니라 의료시설 및 복지증진에도 기여한다고 본다. 또한 학교, 공장, 매스컴 등의 사

회제도 설비시설의 증진을 가져온다고 본다.

그러나 삶의 질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중요한 것은 경제성장이 아니라 한 사회의 부의 분배에 있다고 지적하는 주장도 있다. 즉 수입과 소득이 불평등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평등한 사회의 구성원들보다 상대적으로 덜 행복하다고 인식한다는 것이다(Morawetz, 1977).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절대빈곤의 수준이 아닌 상대적 박탈감이나 분배정의에 대한 인지도에 의해 크게 설명된다는 주장도 이와 연관된다(Alwin, 1987). 오히려 경제성장,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경제성장은 삶의 질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주장도 있다. 경제성장은 부의 집중화를 가져오고 부의 분배에 있어 불평등을 가져와 전체적인 삶의 질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세계체계론 혹은 종속이론가들의 주장이 그것이다(Stokes and Anderson, 1990; Wimberley, 1990).

현대화와 경제성장이 삶의 질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또 다른 입장에는 생태학자들의 주장도 포함된다. 생태학자들은 사회환경과 자연환경의 연관성을 강조한다. 이들은 인간의 행복이 궁극적으로 자연환경에 의존한다고 본다. 즉 인간의 삶의 터전이 되는 자연주거환경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라고 지적한다(Berry and Kasarda, 1977; Bubolz et al., 1980). 식수 및 식량문제, 녹지공원 면적, 소음 및 공해, 교통량, 환경오염, 주택공간 등의 지표를 통해 삶의 질의 정도를 국가간으로 비교한 연구들은 이러한 생태학적 요소를 고려한 연구라 할 수 있다(Jafar and Sufian, 1993). 이러한 입장에 있는 학자들은 도시화, 산업화가 삶의 질의 향상을 반드시 가져온다고 보지는 않는다. 오히려 산업화, 경제발전, 물질문명은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의 수준을 저하한다고 한다.

사회차원의 삶의 질의 연구에서는 그밖에도 의료수준, 교육수준, 사회복지수준, 사회안전도를 삶의 질의 또 다른 주요 영역으로 제시한다(Liu, 1976; Morris, 1979; Cereseto and Waitzkin, 1986; Williamson, 1987; Hirschberg et al., 1991; Jafar and Sufian, 1993). 유아사망율, 평균수명, 의사 1인당 인구수, 병상당 환자수 등의 객관적 지표를 통해 삶의 질을 파악하려는 연구는 의료시설의 수준이 그 사회의 삶의 질에 있어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또한 문맹율, 상급학교 진학율 등의 지표를 사용한 연구는 교육수준과 교육시설의 여건을 삶의 질의 주요 결정요인이라고 본다. 그외에 소외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정도, 치안상태나 사회안전도 또한 삶의 질의 주요 영역이 된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사회차원에서의 삶의 질이 이러한 물질적 지표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한 사회의 사회정치적 조건들이 삶의 질의 또 다른 주요 지표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Gastil, 1987; Hirschberg et al., 1991; Slottje et al., 1991; Dasgupta and Weale, 1992). 이는 흔히 민주국가 혹은 민주사회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지표인 선거를 통한 국가지도자의 선정여부, 정치력의 집중화 정도, 정당수, 시민의 언론, 출판, 표현, 집회 등의 자유, 사법권의 독립성, 사회차별 등을 또 다른 삶의 질의 주요 지표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1980년 48개 개발도상국의 삶의 질을 비교한 Dasgupta와 Weale(1992)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유아사망율이나 문맹율로 볼 때는 개발도상국 중 가장 최고의 삶의 질을 누리고 있고 소득이나 평균수명에 있어서도 2~3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사회정치적 조건은 25위에 머물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정치적 조건들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는 어려움이 많고 측정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요인은 삶의 질을 파악하는 데 있어 필요한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이러한 연구는 사회정치조건에 대한 평가라는 주관적 연구방법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차원의 조건들인 경제수준, 부의 불평등, 환경오염 및 주택문제나 교통문제 등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밖에 의료시설, 교육여건,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사회안전도에 대한 평가, 민주국가로서의 평가 등도 고려하기로 한다. 사회 각 영역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람들은 어떠한 영역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지 파악하기로 하며, 또한 이들 각각에 대한 평가와 사회전체에 대한 만족도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통해 사회차원의 전체적인 삶의 질의 주요 결정영역을 파악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개인들의 주관적 안녕감의 주요 결정요인들을 파악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사회차원의 요인들 외에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요인들을 고려하기로 한다. 개인의 삶의 직접적인 환경이 되는 역할영역에서의 상황을 주요 요인들로 다루려고 하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들이 인간이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에서의 긴장이 개인의 안녕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가정에서 부모-자식간의 갈등, 부부간의 불화나 부부갈등, 직장에서 상사, 동료와의 갈등, 친구들과의 인간관계상의 문제 등은 정신건강에 해가 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복, 삶의 만족감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본다(Campbell et al., 1976; Flanagan, 1978; Levine and Croog, 1984; Evans and Cope, 1989; Pearlin, 1989; Mookhetrjee,

1991; Aneshensel, 1992; Schalock and Keith, 199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본 연구에서는 가정에서의 부모와의 관계와 가정에서의 만족감, 학교생활에서의 만족감,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만족감을 주요 변인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들에게 있어 가정에서의 부모와의 관계는 심리적 안녕감의 주요 요소가 된다고 본다(McLanahan and Adams, 1987). 또한 학교생활 및 학업에 대한 만족도, 학교선생들의 관심과 지원, 학업성취도 등도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된다고 한다(Williams and Batten, 1981; Mok and McDonald, 1994).

지역 및 이웃사람들과의 유대관계도 또 다른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거주 지역 성원들간에 친밀한 상호인간관계가 이루어지고 이웃간의 연대가 잘 이루어지는 그 구성원들이 상대적으로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간다고 밝히고 있다(Kasarda and Janowitz, 1974; Fischer, 1982; Sampson, 1988). 그밖에 많은 연구들이 개인의 여가활동이나 여가기회가 삶의 질의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여 왔다(Andrews and Withey, 1976; Evans and Cope, 1989; Allen, 1990; Jeffres and Dobos, 1993). 여가기회는 개인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 있어서 만족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안락감과 행복감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여가활동과 취미생활도 그 주요 요인으로 다루기로 한다.

개인심리적 영역에서의 주요 변인들로는 기존의 연구들에 근거하여 자긍심, 자기효능감, 삶의 의미와 목표의 여부, 개인적 성장감 등을 다루기로 한다.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개인의 자긍심,

자기효능감, 통제능력 등이 주관적 안녕감이나 삶의 만족감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예컨대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이나 자신이 능력있다고 믿는 사람은 주관적인 안녕감을 더욱 느끼고 살아간다고 한다(Diener, 1984; Emmons and Diener, 1985; Keller, 1987; Evans et al., 1993; Hong and Giannakopoulos, 1994). 또한 외부 상황을 능동적으로 잘 조절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도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고 한다(Ryff, 1989; Lewinsohn et al., 1991; Ormel and Schaufeli, 1991).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여러가지 부정적인 사회경험을 겪은 사람이라도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이라 믿고 어떠한 일든 자신이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는 것이다. 그외에 개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 삶의 의미 혹은 삶의 목표를 갖고 있는가의 여부, 개인이 늘 발전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의 개인적 성장감도 주관적, 심리적 행복감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Ryff, 1989; Zika and Chamberlain, 1992; Evans et al., 1993).

개인의 신체적 건강도 삶의 질에 있어 주요 결정요인으로 다루기로 한다. 최근의 많은 학자들은 건강을 삶의 질의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다룬다(Okun et al., 1984; Zautra and Hempel, 1984; Smith, 1992; Brief et al., 1993). 예컨대 Campbell(1976)의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이 행복의 조건으로 다른 어떠한 요소보다도 건강을 가장 최우선으로 꼽는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Smith(1992)의 생활사건 연구에서도 가정, 직장, 재정상의 문제보다도 건강과 관련한 사건이 삶의 질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들로 사회의 각 영역에 대한 만족감 이외에 가정, 학교, 친구관계에 있어서의 만족감,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감, 여가생활 등의 사회관계 및 역할영역에 있어서의 변인들과 자긍심, 자기효능감, 삶의 목표와 의미, 개인적 성장감 등의 개인정신영역의 변인들 그리고 신체건강의 수준을 고려하기로 한다. 그밖에 개인의 사회배경의 특성을 통제변인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정신건강 및 주관적 안녕감은 가족수입과 같은 경제수준(Williams, 1990; Smith, 1992; Diener et al., 1993), 성(Kessler and McLeod, 1984; Mirowsky and Ross, 1986; Aneshensel, 1992), 결혼가정(Hetherington et al., 1978; McLanahan, 1983),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아 왔다. 구조적으로 불리한 사회배경을 갖는 사람이 실업, 범죄피해, 질병 등의 부정적인 생활사건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가정에서의 갈등과 같이 부정적인 사회환경에 보다 노출되기 쉽기 때문이다(Pearlin, 1989; Aneshensel, 1992; Turner et al., 1995). 이러한 점에서 사회배경요인들과 삶의 질과의 관계도 살펴보려고 한다.

## 2. 연구방법 및 변인의 측정

본 연구를 위해 서울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남녀 고등학생 1,010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에서 사용될 변인은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종속변인인 사회에 대한 만족감은 “당신은 우리나라 사회성원으로서는 만족하십니까?”라는 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척도에 응답토록 하였다. 또 다른 종속변인인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위해서는 “나는 내 모든 생활이 짜증이 나고 불쾌하게 느껴진다”(역으로 부호화), “나는 모든 생활이 즐겁다고 느껴진다”, “나는 전체적으로 볼 때 내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나는 요즘 전체적으로 볼 때 매우 행복하다” 등의 부정적 감정, 긍정적 감정, 삶의 만족감, 삶의 행복감에 관한 4문항을 사용하였다(Cronbach Alpha=.83).

사회 각 영역에 대한 평가를 위해 경제수준은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로, 환경문제, 교통문제, 주택문제, 범죄문제, 빈부격차와 같은 불평등 문제는 각각 과연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로 질문하고 “전혀 심각하지 않다”에서 “매우 심각하다”에 이르는 5점 척도에 응답토록 했다. 의료시설 및 교육제도는 각기 “우리나라는 의료시설이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와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로 질문하였다. 사회복지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4문항을 질문하였는데, 노인, 장애인, 빈민층, 여성을 위한 복지제도가 각각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고 이를 합산하였다(Cronbach Alpha=.83). 마지막으로 사회민주화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민주국가라고 생각하는지,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한지, 언론 및 출판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생각하는지의 3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Cronbach Alpha=.61).

가정에서의 만족을 위해서는 “나는 전체적으로 가정에 대해 만족한다”, “나는 집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낀다”, “나는 부모님과 관계에 매우 만족한다”, “나는 부모님과 갈등이 심하다”(역으로 부호화), “나는 부모님과 마음이 잘 안 맞는다”(역으로 부호화), “부모님은 나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지 못하는 것 같다”(역으로 부호화) 등 6문항을 5점 척도로 질문하고 이를 합산하였

다(Cronbach Alpha=.90). 학교생활에서의 만족을 위해서는 “나는 학교생활에 만족한다”, “나는 학교생활이 즐겁다”, “나는 요즘 학교가기가 싫다”(역으로 부호화) 등 3문항을 고려하였으며(Cronbach Alpha=.84), 친구관계에 있어서의 만족을 위해서는 “나는 내친구들과의 관계에 매우 만족한다”, “나는 내친구들이 매우 마음에 든다” 등 2문항을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Cronbach Alpha=.84).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만족감을 위해서는 “나는 이 지역에 사는 것에 만족한다”, “이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면 아쉽고 서운할 것이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마음에 든다” 등 3문항을 사용하였다(Cronbach Alpha=.83). 여가생활을 위해서는 여가시간을 갖고 틈나는대로 운동, 여행, 취미생활을 갖는지, 음악회나 전시회, 운동경기 등의 행사에 가는지, 야외나 공원에 가는지 등 3문항을 통해 알아 보았다(Cronbach Alpha=.72). 자긍심을 위해서는 “나는 내자신에 만족한다” 등의 10문항으로(Cronbach Alpha=.86), 자기효능감을 위해서는 “나는 능력있는 사람이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어떠한 일든 잘 해낼 수 있다” 등 2문항으로(Cronbach Alpha=.78), 삶의 의미와 개인적 성장감을 위해서는 각각 “나는 삶의 의미있는 목표가 있다”와 “나는 내가 늘 발전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등 1문항씩 사용하였다. 신체건강을 위해서는 “나는 건강한 편이다”, “나는 현재 어떤 병이나 사고로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역으로 부호화), “나는 건강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역으로 부호화) 등 3문항을 질문하였다(Cronbach Alpha=.80).

그밖에 사회배경 변인들로 연령, 성, 부모의 교육정도, 가족의 수입 그리고 결혼가정의 여부를 고려하기로 하였다.

## II. 분석결과

〈표 1〉에서 보여주듯이 본 조사의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17세이다. 응답자의 연령은 16세부터 19세까지 분포되어 있는데 17세가 470명, 18세가 392명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한다. 성별분포를 보면 남성은 492명, 여성은 5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부모의 교육정도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교육정도는 고졸이 462명(47%), 대졸이 358명(36%), 어머니의 교육정도는 고졸이 520명(53%), 대졸이 213명(22%)으로 고졸과 대졸이 상당수를 차지했으며 아버지의 교육정도가 어머니의 교육정도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가족의 수입은 100만원에서 150만원 미만인 20%, 15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인 29%, 2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인 28%로 대략 가족의 수입은 200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의 6%가 결혼가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에 제시된 사회영역별 평가에 대한 결과를 보면 우선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에 대해서는 “매우 못산다”가 9%, “잘 살지 못한다”가 33%, “보통이다”가 38%, “잘산다”가 19%, “매우 잘 산다”가 1%로 나타나 경제수준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환경, 교통, 주택, 범죄, 불평등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극히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특히 교통문제와 환경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의료시설과 교육제도에 대한 평가점수도 낮아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복지제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특히 장애인, 빈민층에 대한 복지가 미비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민주국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으며 특히 법적용이 불평등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표 1〉 빈민들에 대한 기술적 분석

|         | 평균    | 표준오차 | 범위      |
|---------|-------|------|---------|
| 연 령     | 17.38 | .69  | (16~19) |
| 남 성     | .49   | .50  | (0~1)   |
| 부 교육    | 3.35  | .84  | (1~5)   |
| 모 교육    | 2.96  | .85  | (1~5)   |
| 가족수입    | 4.18  | 1.21 | (1~6)   |
| 결혼가정    | .06   | .24  | (0~1)   |
| 경제수준    | 2.71  | .92  | (1~5)   |
| 환경문제    | 4.43  | .71  | (1~5)   |
| 교통문제    | 4.60  | .62  | (1~5)   |
| 주택문제    | 4.20  | .83  | (1~5)   |
| 범죄문제    | 4.04  | .88  | (1~5)   |
| 불평등문제   | 4.05  | .74  | (1~5)   |
| 의료시설    | 2.32  | .86  | (1~5)   |
| 교육제도    | 1.65  | .85  | (1~5)   |
| 복지제도    | 7.49  | 2.46 | (4~20)  |
| -노인복지   | 1.84  | .76  | (1~5)   |
| -빈민층복지  | 1.77  | .74  | (1~5)   |
| -여성복지   | 2.12  | .81  | (1~5)   |
| -장애자복지  | 1.76  | .73  | (1~5)   |
| 민주화     | 8.02  | 2.10 | (3~15)  |
| -전체민주   | 3.22  | .83  | (1~5)   |
| -법평등    | 2.23  | .99  | (1~5)   |
| -언론출판자유 | 2.57  | .98  | (1~5)   |
| 가정만족    | 20.18 | 5.19 | (6~30)  |
| 학교만족    | 9.06  | 2.80 | (3~15)  |
| 친구만족    | 7.13  | 1.77 | (2~10)  |
| 지역만족    | 9.17  | 2.69 | (3~15)  |
| 여가생활    | 7.34  | 2.57 | (3~15)  |
| 자공심     | 35.21 | 6.28 | (14~50) |
| 자기효능감   | 7.34  | 1.68 | (2~10)  |
| 삶의 의미   | 3.79  | .95  | (1~5)   |
| 개인성장    | 3.19  | .88  | (1~5)   |
| 신체건강    | 11.60 | 2.58 | (3~15)  |
| 사회만족도   | 2.62  | .95  | (1~5)   |
| 주관적 안녕감 | 11.76 | 3.13 | (4~20)  |

그러나 민주화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다른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영역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교통, 환경, 주택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 범죄문제나 빈부격차와 같은 불평등문제 그리고 교육제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영역별 평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가정, 학교, 친구관계, 지역에 대한 만족에 있어 다소 긍정적인 응답을 나타냈고 가정, 친구관계, 지역에 대한 만족도와 비교해 볼 때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대체로 신체가 건강하다고 보고하였으나 여가활동의 측면에 있어서는 그 점수가 낮아 대다수의 학생들이 여가시간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자긍심, 자기효능감, 삶의 목표와 의미, 개인의 성장감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에 대해 전체적으로 느끼는 만족도는 다소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주관적으로 느끼는 일반적인 안녕감, 행복감에 있어서도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는 사회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사회의 각 영역에 대한 평가를 독립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제시한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사회의 경제수준에 대한 평가, 주택문제의 심각성 여부, 의료시설 및 교육제도에 대한 평가 그리고 민주화에 대한 평가 여부가 사회전체에 대한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특히 민주화에 대한 평가와 교육제도에 대한 평가가 가장 중요한 설명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가 민주국가라고 생각하며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

<표 2> 사회만족도에 대한 사회영역별 평가의 회귀 분석

| 독립변인           | 종속변인    |       |
|----------------|---------|-------|
|                | 사회만족도   |       |
|                | b       | B     |
| 연 령            | .127**  | .092  |
| 남 성            | -.063   | .033  |
| 부 교육           | -.133*  | -.117 |
| 모 교육           | .095*   | .085  |
| 가족수입           | -.047   | -.059 |
| 결손가정           | -.034   | -.008 |
| 경제수준           | .162*** | .156  |
| 환경문제           | .077    | .057  |
| 교통문제           | .008    | .006  |
| 주택문제           | -.127** | -.111 |
| 범죄문제           | .070    | .060  |
| 불평등문제          | .012    | .010  |
| 의료시설           | .110**  | .098  |
| 교육제도           | .211*** | .187  |
| 복지제도           | -.007   | -.017 |
| 민주화            | .085*** | .188  |
| R <sup>2</sup> | .207    |       |

\*:p<.05, \*\*:p<.01, \*\*\*:p<.001

할수록 사회전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제수준에 대한 평가도 중요한 설명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비록 그 설명력은 약하지만 주택문제에 대한 평가와 의료시설에 대한 평가도 사회만족도를 결정하는 유의미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통, 환경, 범죄 그리고 불평등문제에 대한 평가와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평가는 사회만족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 3>은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사회의 각 영역에 대한 평가를 독립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제시한다.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에는 사회의 민주화에 대한 평

가와 교육제도에 대한 평가가 주요 설명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사회민주화 정도와 교육제도에 대한 평가가 사회만족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됨을 제시한 <표 2>의 결과와 일치한다. 즉 <표 2>와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에 대한 만족도나 개인의 안녕감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민주국가에 대한 평가와 교육제도에 대한 평가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4>는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개인의 각 영역에 대한 평가를 독립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제시한다. 분석결과는

<표 3>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사회영역별 평가의 회귀분석

| 독립변인           | 종속변인    |       |
|----------------|---------|-------|
|                | 사회만족도   |       |
|                | b       | B     |
| 연 령            | -.155   | -.034 |
| 남 성            | .420*   | .067  |
| 부 교육           | .136    | .036  |
| 모 교육           | .054    | .015  |
| 가족수입           | .286**  | .110  |
| 결손가정           | -.390   | -.030 |
| 경제수준           | .079    | .023  |
| 환경문제           | .351    | .080  |
| 교통문제           | .035    | .007  |
| 주택문제           | -.084   | -.022 |
| 범죄문제           | .192    | .054  |
| 불평등문제          | -.172   | -.041 |
| 의료시설           | -.057   | -.016 |
| 교육제도           | .465*** | .126  |
| 복지제도           | -.001   | -.001 |
| 민주화            | .206*** | .139  |
| R <sup>2</sup> | .085    |       |

\* :p<.05, \*\* :p<.01, \*\*\* :p<.001

가정에서의 만족,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 친구관계에 있어서의 만족,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 여가생활, 자긍심 그리고 개인의 성장감이 유의미한 설명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특히 학교생활에서의 만족이 주관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학교생활이 즐겁다고 느낄수록 자신의 생활에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설명 요인은 자긍심으로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개인영역별 평가의 회귀분석

| 독립변인           | 종속변인    |       |
|----------------|---------|-------|
|                | 사회만족도   |       |
|                | b       | B     |
| 연 령            | -.085   | -.018 |
| 남 성            | .471**  | .075  |
| 부 교육           | .247*   | .066  |
| 모 교육           | -.232   | .063  |
| 가족수입           | .049    | .019  |
| 결손가정           | .149    | .011  |
| 가정만족           | .121*** | .201  |
| 학교만족           | .403*** | .360  |
| 친구만족           | .102*   | .058  |
| 지역만족           | .113*** | .097  |
| 여가생활           | .099*** | .081  |
| 자긍심            | .114*** | .228  |
| 자기효능감          | -.100   | -.058 |
| 삶의 의미          | .131    | .040  |
| 개인성장           | .554*** | .155  |
| 신체건강           | -.002   | -.002 |
| R <sup>2</sup> | .529    |       |

\* :p<.05, \*\* :p<.01, \*\*\* :p<.001

가정에서의 만족 또한 청소년의 행복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이 늘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자신이 살고있는 지역에 대해 애착을 가질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외에 여가생활을 즐길수록, 친구관계에 만족할수록 안녕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요한 삶의 목표가 있는지의 여부,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자기효능감, 신체적 건강 등은 주관적 안녕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들을 살펴보면 남성이, 그리고 아버지의 교육이 높은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주관적인 안녕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 론

이 글은 기존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고 주관적 연구방법에 기초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경험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삶의 질에 대한 객관적 지표에 의존하기보다는 주관적 연구방법을 통해 청소년들의 사회 각 부문과 사회전체에 대한 만족도와 개인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안녕감과 행복감을 살펴보았다. 또한 전체적인 사회만족도와 일관적인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삶의 영역별 결정요인은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삶의 질의 주요 구성요소를 간접적으로 도출하려고 시도하였다.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사회차원의 삶의 질의 영역에 대하여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하였다. 교통, 환경, 주택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았고 범죄문제나 빈부격차와 같은 불평등문제도 심각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또한 교육제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그밖에 사회복지, 의료

시설, 민주화, 경제수준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즉 우리나라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서 그 점수가 매우 낮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생활에 있어서도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 다소 불만족하고 있었으며 대다수가 여가시간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은 사회의 한 성원으로서의 만족에서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느끼는 안녕감, 행복감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한편 청소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사회차원에서 보면 교육제도와 민주화의 정도로 나타났으며, 개인영역별로 보면 학교생활에서의 만족, 가정, 친구관계에서의 만족, 지역에 대한 만족, 여가생활, 자긍심과 개인적 성장감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층은 입시문제 때문에 여러 사회영역들 중에서도 특히 교육여건이 그들의 삶의 만족도를 크게 좌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소년층은 기성세대와 달리 개혁지향적이며 민주사회에 대한 열망이 강하기 때문에 민주화의 정도가 삶의 질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듯하다. 이 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체에 일반화하여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민주화에 대한 노력과 교육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밖에도 비록 삶의 질의 주요 결정요인은 아니었지만 청소년들이 극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환경, 교통, 주택, 범죄문제에 대한 방안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보다 중요한 요소는 청소년들의 역할영역에서의 만족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가정과 학교에서의 역할수행 여부와 만족도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결국 청소년의 삶의 질을 위해서

는 무엇보다도 부모의 애정과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의 연구는 객관적인 지표에 의한 연구에서 더 나아가 주관적 연구방법을 통해 어떠한 요인들이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지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층이 외의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연령, 성, 계층에 따른 삶의 질의 결정 요인은 어떻게 다른지에 관한 보다 확대된 연구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외국에서 발전된 삶의 질의 지표가 우리나라에서도 잘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성원들의 삶의 질의 주요 결정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도 요구된다고 하겠다.

## 참 고 문 헌

- 시정개발연구원. 1996. 서울의 국제경쟁력 진단. 시정개발연구원 보고서.
- 조명환, 김정오, 권석만. 1994. "청소년의 삶의 질."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Abbey, A. and F.M. Andrews. 1986. "Modeling the Psychological Determinants of Life Quality." In *Research on the Quality of Life*, edited by Andrews. Ann Arbor : University of Michigan.
- Adelman, H., L. Taylor and P. Nelson. 1989. "Minors' Dissatisfaction with Their Life Circumstances."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20 : 135-47.
- Allen, L.R. 1990. "Benefits of Leisure Attributes to Community Satisfac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2 : 183-96.
- Alwin, D.F. 1987. "Distributive Justice and Satisfaction with Material Well-being."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 : 83-95.
- Andrews, F. and S. Withey. 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 Americans' Perceptions of Life Quality*. New York : Plenum.
- Aneshensel, C.S. 1992. "Social Stress : Theory and Research." *Annual Review of Sociology* 18 : 15-38.
- Argyle, M. 1987. *The Psychology of Happiness*. London : Methuen.
- Berry, B. and J. Kasarda. 1977. *Contemporary Urban Ecology*. New York : Macmillan.
- Bradshaw, Y.W. and E. Fraser. 1989. "City Size, Economic Development and Quality of Life in China."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 : 986-1003.
- Brief, A.P., A.H. Butcher, J.M. George and K. E. Link. 1993. "Integrating Bottom-up and Top-down Theories of Subjective Well-being : The Case of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 646-53.
- Bubolz, M., J. Eicher, J. Ever and M. Sontag. 1980. "A Human Ecological Approach to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7 : 103-16.
- Campbell, A., P.E. Converse and W.L. Rodg-

- ers.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 Russell Sage.
- Cereseto, S. and H. Waitzkin. 1986. "Capitalism, Socialism and the Physical Quality of Life."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16 : 643-59.
- Dasgupta, P. and M. Weale. 1992. "On Measuring the Quality of Life." *World Development* 20 : 119-31.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utine* 95 : 542-75.
- \_\_\_\_\_, E. Sandvik, L. Seidlitz and M. Diener. 1993.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Subjective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28 : 195-223.
- \_\_\_\_\_, M. Diener and C. Diener. 1994. "Factors Predicting the Subjective Well-being of Nations." Manuscript submmitted for Publication.
- Emmons, R.A. and E. Diener. 1985. "Personality Correlates of Subjective Well-be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utine* 11 : 89-97.
- Evans, D.R. and W.E. Cope. 1989.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Manual*. Toronto : Multi-Health System.
- \_\_\_\_\_, J.R. Pellizzari, B.J. Culbert and M.E. Metzen. 1993. "Personality, Marital and Occupational Factors associated with Quality of Lif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9 : 477-85.
- Fischer, C. 1982. *To Well along Friends : Personal Network in Town and Cit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lanagan, J.C. 1978. "A Research Approach to Improving our Quality of Life." *American Psychologist* 33 : 138-47.
- Gastil, R.D. 1987. *Freedom in the World*. Westport, CT : Greenwood Press.
- Headey, B. and A. Wearing. 1989. "Personality, Life Events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 731-39.
- Hetherington, E.M., M. Cox and R. Cox. 1978. "The Aftermath of Divorce." In *Mother-child, Father-child Relations*, edited by J. H. Stevens and M. Matthews. Washinton, DC : NAEYC.
- Hirschberg, J.G., E. Maasoumi and D.J. Slottje. 1991. "Cluster Analysis for Measuring Welfare and Quality of Life across Countries." *Journal of Econometrics* 50 : 131-50.
- Hong, S.M. and E. Giannakopoulos. 1994. "The Relationship of Satisfaction with Life to Personality Characteristics." *Journal of Psychology* 128 : 547-58.
- Huebner, E.S. 1994. "Preliminar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ultidimensional Life Satisfaction Scale for Children." *Psychological Assessment* 6 : 149-58.
- Inkeles, A. 1993. "Industrialization, Modernization and the Quality of Life."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34 : 1-23.
- Jafar, A. and M. Sufian. 1993. "A Multivariate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Urban Quality of Life in the

- World's Largest Metropolitan Areas." *Urban Studies* 30 : 1319-29.
- Jeffres, L.W. and J. Dobos. 1993. "Perceptions of Leisure Opportunities and the Quality of Life in a Metropolitan Area."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5 : 203-17.
- Jenkins, C.D., R.T. Jono, B.A. Stanton and C. A. Stroup. 1990. "The Measurement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 Major Dimensions Identified by Factor Analysi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31 : 925-31.
- Kamman, R., M. Farry and P. Herbison. 1983. "The Analysis and Measurement of Happiness as a Sense of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15 : 91-115.
- Kasarda, J. and M. Janowitz. 1974. "Community Attachment in Mass Socie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9 : 328-39.
- Kessler, R.C. and J.D. McLeod. 1984. "Sex Differences in Vulnerability to Undesirable Life Even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9 : 620-31.
- Lane, R.E. 1994. "Quality of Life and Quality of Persons : A New Role for Government?" *Political Theory* 22 : 219-52.
- Levine, S. and S.H. Croog. 1984. "What Constitutes Quality of Life?—A Conceptualization of the Dimensions of Life Quality in Health Populations and Patients with Cardiovascular Disease." In *Assessment of Quality of Life in Clinical Trials of Cardiovascular Therapy*, edited by N. K. Wegner et al. New York : Le Jacq.
- Lewinsohn, R.M., J.E. Redner and J.R. Seelcy. 1991.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Psychosocial Variables : New Perspectives." In *Subjective Well-being :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edited by F. Strack, M. Argyle and N. Schwarz. Oxford, England : Pergamon Press.
- Liu, B.C. 1976. *Quality of Life Indicators in U. S. Metropolitan Areas*. New York : Praeger.
- McCall, S. 1975.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 : 229-48.
- McLanahan, S. 1983. "Family Structure and Stress : A Longitudinal Comparison of Two-parent and Female-headed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 347-57.
- \_\_\_\_\_ and J. Adams. 1987. "Parenthood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nnual Review of Sociology* 13 : 237-57.
- Michalos, A.C. 1980. *North American Social Report*. Boston, Reidel.
- Mirowsky, J. and C.E. Ross. 1986. "Social Patterns of Distress." *Annual Review of Sociology* 12 : 23-45.
- \_\_\_\_\_ 1992. "Age and Depress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3 : 187-205.
- Mok, M.C. and R.P. McDonald. 1994. "Quality of School Life : A Scale to Measure Student Experience or School Climat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4 : 483-95.
- Mookherjee, H.N. 1991. "Perceptions of Well-

- being by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Population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2 : 513-24.
- Morawetz, D. 1977. “Income Distribution and Self-reported Happiness : Some Empirical Evidence.” *Economic Journal* 87 : 511-22.
- Morris, D.M. 1979. *Measuring the Conditions of the World's Poor : The Physical Quality of Life*. New York : Pergamon Press.
- Mukherjee, R. 1989. *The Quality of Life : Valuation in Social Research*. New Delhi : Sage.
- Okun, M.A., W.A. Stock, M.J. Haring and R. A. Witter. 1984. “Health and Subjective Well-being : A Meta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9 : 111-31.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1976. *Measuring Social Well-being*. Paris : OECD.
- Ormel, J. and W.B. Schaufeli. 1991. “Stability and Change in Psychological Distres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Self-esteem and Locus of Control : A Dynamic Equilibrium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 288-99.
- Pearlin, L.I. 1989. “The Sociological Study of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0 : 241-56.
- Ram, R. 1982. “Composite Indices of Physical Quality of Life, Basic Needs Fulfillment and Income.”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11 : 227-47.
- Romney, D.M., C.D. Jenkins and J.M. Bynner. 1992. “A Structural Analysis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Dimensions.” *Human Relations* 45 : 165-76.
- Ryff, C.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 1069-81.
- Sampson, R.J. 1988. “Local Friendship Ties and Community Attachment in Mass Socie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3 : 766-79.
- Schalock, R.L. 1990. “Attempts to Conceptualize and Measure Quality of Life.” In *Quality of Life : Perspectives and Issues*, edited by R.L. Schalock. Washington DC : 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Retardation.
- \_\_\_\_\_ and K.D. Keith. 1993.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Worthington, OH : IDS.
- Schuessler, K.F. and G.A. Fisher. 1985. “Quality of Life Research and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11 : 129-49.
- Slottje, D.J., G.W. Scully, J.G. Hirschberg and K.J. Hayes. 1991. *Measuring the Quality of Life across Countries*. Boulder, CO : Westview Press.
- Smith, T.W. 1992. “A Life Events Approach to Developing an Index of Societal Well-being.” *Social Science Research* 21 : 353-79.
- Stokes, R.G. and A.B. Anderson. 1990.

- “Disarticulation and Human Welfare in Less Developed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5 : 63-74.
- Strack, F., M. Argyle and N. Schwarz. 1991. *Subjective Well-being :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Oxford, England : Pergamon Press.
- Szalai, A. and F.M. Andrews. 1980. *The Quality of Life : Comparative Studies*. Beverly Hills, CA : Sage.
- Thoits, P.A. 1983. “Dimensions of Life Events that Influence Psychological Distress : An Evaluation and Synthesis of the Literature.” In *Psychosocial Stress :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edited by H.B. Kaplan. New York : Academic.
- Turner, R.J., B. Wheaton and D.A. Lloyd. 1995. “The Epidemiology of Social Disstres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 : 104-25.
- Veenhoven, R. 1991. “Is Happiness Relativ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4 : 1-34.
- Williams, T. and M. Batten. 1981. *The Quality of School Life*. Hawthorn, Victoria : Australian Council for Educational Research.
- Williams, D.R. 1990. “Socioeconomic Differentials in Health : A Review and Redirection.”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3 : 81-99.
- Williamson, J.B. 1987. “Social Security and Physical Quality of Life in Developing Nations : A Cross-national Analysi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9 : 205-27.
- Wimberley, D.W. 1990. “Investment Dependence and Alternative Explanations of Third World Mortality : A Cross-national Stud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5 : 75-91.
- Zautra, A. and A. Hempel. 1984. “Subjective Well-being and Physical Health : A Narrative Literature Review with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9 : 95-110.
- Zika, S. and K. Chamberlain. 1992. “On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in Lif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83 : 133-45.